

오늘의 만나(가정예배)

2월 23일 찬송/ 497장(새440장) 본문/ 미6:1~8(구약 1296) 제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법정에 불러 세우시고 그들과 격론을 벌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소송을 거신 것은 징계와 책망을 통해 그들을 다시 언약으로 돌이키시려는 사랑의 열정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40년동안 모세와 아론을 통해 지도하며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성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2월 24일 찬송/ 288장(새604장) 본문/ 미6:9~16(구약 1297쪽) 제목: 삶에 대한 지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기 백성의 불의에 대해 지적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6장 7절에서 완전한 지혜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바로잡으시려고 매를 때리십니다. 그 매를 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라면 겸손히 수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월 25일 찬송/ 256장(새515장) 본문/ 미7:1~6(구약 1297쪽) 제목: 한 사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사회에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깊은 탄식을 합니다. 유다 사회가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 볼 수 없는 암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착하고 정직한 착한 열매를 찾고 있지만 모두가 탐욕에 취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가 선지자는 의인 열 명이 없어 멀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루살렘 성이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해 파멸할 것을 내다보며 깊이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전심을 다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2월 26일 찬송/ 185장(새311장) 본문/ 미7:7~13(구약 1297쪽) 제목: 치료하시는 하나님

미가는 한 명의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지금 유다는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모두 불의로 가득차서 멸망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할지 모를 정도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빛을 비추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에서 절망과 낙담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월 27일 찬송/ 253장(새521장) 본문/ 미7:14~20(구약 1297쪽) 제목: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에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실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재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월 28일 찬송/ 195장(새261장) 본문/ 나1:1~8(구약 1299쪽) 제목: 분노의 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온 앗수르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피의 복수자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질투하시며 보복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감정과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 일하시는 거룩한 열심입니다. 이 열심으로 모든 불순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분노의 불로 무장하여 대적자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 맹렬히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잡초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성령의 불로 태워 정직하고 정결한 영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